예배 및 모임안내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둠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11. 08	11. 15	11. 22
대 표 기 도	최상우 형제	장래황 형제	윤미경 자매
성 경 봉 독	최상우 형제	장래황 형제	윤미경 자매

교회소식

11월 축복 인사 : 선을 구하며 생명을 누립시다!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금요기도와 말씀 묵상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북부지역 청년 연합찬양 - 11월 14일(토) 오후 3시, 순복음교회당(강사 이상호 목사)
5. 나눔의 시간 - 경아, 효섭 Steinbauer 성도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10월)	

2026-44 2026년 11월 01일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브레멘 한민교회 -
Bremen Hanmin Church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입례찬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Gemeindelied	----------	다같이
기 도 Gebet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계 3 : 18 - 22(신p402) (Offenbarung 3:18~22)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상호 목사
성찬예식 Abendmahl	살아계신 주, 눅22:19~20	담임목사
*파송찬양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2027년 선교훈련을 위해서
5.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2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1.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좋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2. 주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책망은 성도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3.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4.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요압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맡겨진 일에 충실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5.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릅시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인정받는 한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왜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2. 최선을 다한 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나눠 보세요.

브레멘한민교회
Bremen Hanmin Church